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Related Variables

박 응 임**

Park, Ung Im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1) the relations between infant-mother attachment and maternal sensitivity, maltreatment, stress, and childhood experience, and (2) relations between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nfant temperamen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5 14 to 20 month-old infants (27 boys and 28 girls) and their mothers in Seoul.

In order to assess the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each infant-mother dyad was videotaped in the modified Ainsworth's Strange Situation. Each dyad was filmed for 3 minutes in the Questionnaire Situation of Smith and Pederson (Smith, & Pederson, 1988) to assess maternal sensitivity responding to infant's cues. Each mother also was interviewed by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made by author to measure maternal maltreatment.

Each mother was asked to complete three Likert-type questionnaires, containing Parenting Stress Index (PSI) (Abidin, 1990) to measure the maternal stress, Mother-Father Peer Scale (MFPS) (Epstein, 1983) to measure childhood experience, and Emotionality, Activity, Sociality (EAS) (Buss, & Plomin, 1984) to measure infant's temperament.

The statistical procedures used for data analyses were correlation,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d Cronbach's α coefficient.

The results showed that (1) mothers of insecure-avoidant infants maltreated their infants more than mothers of secure infants, and (2)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ternal maltreatment was predicted by maternal education, maternal stress (parent domain), and maternal childhood experience in relation to her own mother (acceptance vs. rejection).

* 본 논문은 1995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한국 해양대학교 강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애착이란 어떤 특정인과 접촉하고 가까이 있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로, 발달심리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생의 초기에 형성하는 안정된 애착이 전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적 발달뿐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면의 발달까지 포함한 전반적 인간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Matias, Arend, & Sroufe, 1978; Hazen, & Durrett, 1982; Ricks, 1985; Kobak, & Sceery, 1988; 유은희, 1991). 이 중에서도 영아기에 주양육자가 되는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은 다른 어떤 애착관계보다도 선행하여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애착관계라는 점에서 더 많은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실제적인 양육이 아직은 어머니에게 대부분 전담되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아는 보통의 상황에서 대개 첫 애착을 어머니와 형성하며, 비록 애착하려는 성향은 선천적이긴 하지만 애착 그 자체는 미리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시킨다(Ainsworth, 1982). 이때 영아와 어머니간의 안정된 애착형성은 어머니의 민감하며 반응적인 양육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elsky, Rovin, & Taylor, 1984; Egeland, & Farber, 1984; Isabella, & Belsky, 1991; 김중순, 1989). Ainsworth, Blehar, 및 Waters (1978)는 1년 정도 가정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영아가 울거나 어머니에게 접근할 때 안정애착아의 어머니들은 영아의 접근을 허용하며 반응적인 반면, 불안-회

피애착아의 어머니들은 영아를 거부하고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아의 접근을 제지하고 거부하였고, 불안-저항애착아의 어머니들은 뚜렷하게 거부적 특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영아의 울음에 반응적이지 못하였다.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민감성의 차원 외에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maltreatment)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계속 기울여지고 있다. Main과 Solomon(1990)이 제안한 새로운 애착유형인 D유형을 포함시켜 애착을 알아본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형태인 D유형은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혹은 정서적 무시 등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특징적이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속하거나 십대의 부모를 둔 위험이 높은 집단의 영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Carlson, Cicchetti, Barnett, & Braunwald, 1989; Main, & Solomon, 1990).

최근에 들어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할 때 부모자녀관계를 단순히 부모와 자녀간의 일방적 혹은 쌍방적 관계만을 볼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를 둘러싼 다른 체계들과도 연관시켜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Belsky, 1981). 따라서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만 초점을 두던 것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나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예: Main, Kaplan, & Cassidy, 1985; Ricks, 1985; Bretherton, 1987; Abidin, 1990; 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영아의 애착과 부/모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한 Hart(1985)의 연구에서도 불안-회피애착과 불안-저항애착 영아의 어머니들이 안정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보다 유의하

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고, 불안-저항애착 영아의 아버지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서도 안정되게 애착된 영아의 어머니들은 불안정하게 애착된 영아의 어머니보다 그들의 부모,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아동기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기억을 보고하였고, 불안정애착 유아의 어머니들은 안정애착 유아의 어머니들 보다 부모를 더 이상화하였으며, 어머니가 아동기 때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수용되어진 것이 유아기 때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장 잘 예측해 주었다(Rickes, & Noyes, 1984; Ricks, 1985).

이밖에 최근 영아-어머니의 애착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아 자신의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영아의 기질에 관심을 두어 왔다. 애착과 기질과의 관계에 관한 입장들은 애착 그 자체가 기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Vaughn, Stevenson-Hinde, Waters, Kotsaftis, Lefever, Shoultice, Trudel, & Belsky, 1992)과 애착과 기질은 다른 개념으로 별개의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Sroufe, 1985)으로 대립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대립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으로든 애착에 대한 기질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후자의 경우 역시, 비록 애착과 기질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은 그를 둘러싼 여러 체계들간의 상호 역동적인 호혜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까다로운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따라서 영아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나타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형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어머니-영아의 애착을 둘러싼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포함시킨 체계적 연구가 행해져야 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이런 유형의 연구가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반해(예: Egeland, & Farber, 1984; Thompson, Connell, & Bridges, 1988; Cox, Owen, Henderson, & Margand, 1992), 국내의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영아의 기질과 같은 어머니-영아의 애착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영아가 어머니에게 나타내는 애착유형에 관계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어머니의 애착유형에 (1)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2)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 (3)어머니의 스트레스, (4)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5)영아의 기질 등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성질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유형과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유형과 어머니의 민감성, 부당한 양육행동, 스트레스, 아동기 경험, 및 영아의 기질은 관계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개월에서 만 20개월에 속한 영아와 그 어머니 55쌍을 연구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중·하를 모두 포함하는 표집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질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인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maltreatment)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Crittenden, 1985).

2. 측정도구

(1) 실험실 실험법

실험실 실험은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과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은 Ainsworth 등(1978)이 개발한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Ainsworth의 낯선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용임과 박성연(1994)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민감성 측정은 Smith와 Pederson(1988)의 질문지상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낯선상황의 마지막 장면이 끝난 후 어머니와 영아가 충분히 안정되었고 영아가 기저귀갈기 혹은 물마시기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바로 질문지상황에 들어갔다. 질문지상황은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준 후 어머니

가 질문지를 완성하는 동안 영아가 어머니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낼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분 동안 영아와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2) 면접조사

어머니가 영아에게 나타내는 부당한 양육행동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통하여 측정해 내었다.

먼저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부당한 양육행동(maltreatment)이란 용어에 대해서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양육행동을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영아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다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크게 정서적 무관심, 방임, 신체적 처벌 등의 세가지 영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와같은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문항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연구들(고성혜, 1992; Crittenden, 1985)을 참고해서 부적절한 문항들은 수정 또는 삭제하여, 15개의 질문형식으로 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면접법을 통해 수집한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 자료는 각 질문들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내용 기록과 녹음한 테이프를 토대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정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때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로, 1점의 경우 어머니가 영아에게 부당한 양육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이며 반대로 5점의 경우 어머니가 심하게 부당한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평정척도를 가지고 본 연구자와 아동학자 한 명이 면접자료들을 분석하였는데, 두 평정자간의 신뢰도는 .919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문항별로 어머니들의 응답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2개의 문항에서 어머니들의 응답 내용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문항들은 제외시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모두가 1~5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로 검증하였는데 .81로 나타났다.

(3) 질문지 조사

질문지 조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그리고 영아의 기질에 대한 세가지의 척도들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 영역에서 23문항, 부모영역에서 26문항을 추출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한 문항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삭제하고 총 48개의 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만들었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5점이며 높은 점수로 갈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로 알아 본 어머니의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아동영역의 경우 신뢰도 계수는 .82로, 부모 영역의 경우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졌던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척도는 Epstein(1983)이 제작한 부모-포레-척도(MFPS)중 (1)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각각 13개의 문항, (2)수용 대 거부차원 각각 10문항씩 총 46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Cronbach's α 로 산출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 차원별로 $\alpha=.72\sim.87$ 로 나타나 별도의 수정작업 없이 본 조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5점으로 된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졌는데, 어머니의 아동기 때의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어머니에게 독립심을 더 많이 조장하였으며, 어머니를 더 많이 수용했던 것으로 해석한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

대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부에 대한 경험 척도는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은 $\alpha=.89$ 로, 그리고 수용 대 거부차원은 $\alpha=.93$ 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모에 대한 경험 척도의 각 차원별 신뢰도는 아버지에 대한 경우보다 약간 낮았는데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은 $\alpha=.73$, 그리고 수용 대 거부 차원은 $\alpha=.87$ 로 밝혀졌다.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척도를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EAS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정서성 3문항, 활동성 4문항, 사회성 7문항 등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척도의 신뢰도는 정서성의 경우 $\alpha=.65$ 로, 활동성은 $\alpha=.80$ 으로 그리고 사회성은 $\alpha=.75$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우선 본실험과 본조사에 앞서 예비실험과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실험방법들과 질문지 등을 수정하였다. 본 실험은 1994년 8월 16일에서 8월 2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실험을 위해서 영아의 어머니에게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낯선상황 절차에 대한 소개와 실험시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간단한 지침을 전달하고 난 다음 실험에 응하게 하였으며 실험의 전 상황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은 낯선상황이 끝나고 곧이어 실시하였는데, 낯선상황이 끝난 후 실험자는 실험실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낯선상황 실험이 끝났음을 알리고 영아의 기질에 대한 질문지를 나눠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문지를 완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때 낯선상황에서와 달리 어머니의 행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분명히 전달

하여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영아의 신호에 반응할 수 있게 하였다. 관찰은 3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졌으며 낯선상황과 마찬가지로 전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본조사에서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낯선상황 실험이 끝난 후 어머니에게 나눠주고,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상황 실험 동안 어머니가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인구배경학적 변인들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는 낯선상황 실험과 질문지상황 실험이 끝난 후, 어머니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배부하면서 가정에서 미리 작성하도록 부탁하고 연구자가 나중에 면접을 위해 방문했을 때 직접회수하였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알아내기 위한 면접조사는 1993년 9월 4일에서 9월 21일까지 행해졌는데, 어머니들이 실험에 참여한 뒤 약 보름에서 한달 후에 연구자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시 어머니들에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30분 정도였다. 면접에 대한 응답은 본 연구자가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기록하였으나, 기록으로 인해 면접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과정을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4. 자료분석

(1) 영아의 애착 유형분류

애착유형분류는 2 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1단계 분석은 점수화 과정으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관찰자가 낯선상황실험을

녹화한 테이프를 재생하면서 1장면을 제외한 6개의 장면에서 각 장면별로 애착의 지표가 되는 영아의 6가지(접촉추구, 접촉유지, 회피, 저항, 찾기, 원거리 상호작용) 행동들을 관찰하여 각 행동별로 1~7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평정하였으며, 관찰자간 신뢰도는 .914¹⁾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은 1단계의 점수화 과정에서 얻어진 점수들을 근거로 해서 Ainsworth 등(1978)이 제시한 애착유형분류 준거에 따라 영아들을 B(안정애착)유형, A(불안-회피애착)유형, 및 C(불안-저항애착)유형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덧붙여 Ainsworth 등(1978)이 제시한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지지 않는 영아를 분류하기 위해 Main과 Solomon(1990)의 D(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유형에 대한 지표도 함께 사용하였다. 애착유형분류는 B, A, C, D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대집단 분류 외에 이들 각각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해 내는 과정도 아울러 행해졌다. B유형은 B₁, B₂, B₃, B₄로, A유형은 A₁과 A₂로, 그리고 C유형은 C₁과 C₂로 하위분류된다. 애착유형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946이었다. 애착유형분류는 점수화 과정과 달리 추후의 분석을 위해 한 영아가 단지 하나의 유형으로만 분류되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관찰자들 간에 애착유형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관찰자들이 각자 테이프를 다시 보면서, 재분류하여 이견을 조정한 뒤 100% 일치를 얻어내었다.

(2) 어머니의 민감성 분석

질문지 상황에서 나타난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평정은 평정방법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게 두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평정

1) 앞으로의 모든 관찰자간 신뢰도는 Irwin과 Bushnell(1980)의 방법에 의해 산출할 것이다.

신뢰도=(관찰자간에 서로 동의한 관찰빈도/관찰자들의 총 관찰빈도)×관찰자수

하였고, 자료분석에서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다.

첫번째 방식(A형)은 원래 질문지 상황에서 민감성을 관찰하는 방법을 고안한 Smith와 Pederson(1988)의 평정방법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 총 3분간의 질문지 상황을 10초 간격으로 구분하여 18개의 장면으로 나누고, 각 장면에서 영아의 행동(울기, 흐느끼기, 소리내기, 어머니의 얼굴 쳐다보기, 어머니를 향한 3단계 접근)과 어머니의 행동(소리내기, 영아 바라보기, 손내밀기, 만지기, 들어올리기, 안아주기) 등을 관찰하여 발생빈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머니의 반응을 적절, 불충분, 강요적 등의 세가지 반응으로 구분한 후, 영아가 어머니의 반응을 요구했을 때 어머니가 적절하게 반응한 장면의 비율을 산출하여 어머니의 민감성을 평정하였다.

민감성 평정의 두번째 방식(B형)은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들(Belsky, Rovine, & Taylor, 1984; Egeland, & Farber, 1984; Isabella, & Belsky, 1991; Cox, Owen, Henderson, & Margand, 1992)을 참고하여 직접 고안한 것으로, 어머니의 행동은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는데 높은 점수로 올라 갈수록 어머니의 반응이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석과정에서도 관찰시간단위는 첫번째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10초씩이었으며 따라서 총 18개의 장면들로 구분되어진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애착유형분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4명에게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실시한 후 분석과정에 임하게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찰자들간의 관찰한 반응의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관찰자간 신뢰도는 A형은 .872로 그리고 B형은 .83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위의 서로 다른 두가지 방식의 민감성 평정이 과연 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r = .49(p < .001)$ 로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3) 기타 자료분석

영아의 애착유형분류와 어머니의 민감성 분석 외에도 수집된 자료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방법들은 빈도, 상관관계, 일원변량분석, 회귀분석 등이다.

IV. 결 과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분류된 애착의 하위유형별로 애착과 관련된 변인들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안정애착유형의 하위유형들인 B₁, B₂, B₃의 경우를 보면 각 변인별로 나타난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B₁, B₂, B₃의 하위유형들이 아닌 안정애착인 B유형을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불안-회피애착인 A₁과 A₂의 경우도 A₂유형의 사례수가 한명뿐이므로 비교하기 어렵고 이들 두 하위집단간에 뚜렷하게 차이나는 특성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불안-회피애착도 안정애착과 마찬가지로 하위유형별로 세분류하지 않고 A₁과 A₂를 한데 묶어 A유형을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1. 영아의 불안-저항애착 및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애착유형분류에서 불안-저항애착과 비조직적/

(표 1) 애착의 하위유형별 특성(*)

애착유형 (사례수)	특성		어머니의 민감성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영아의 기질		
	A	B	부모 영역	아동 영역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수용 대 거부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수용 대 거부					
B ₁ (14)	82.8 (26.8)	5.3 (.6)	67.1 (15.9)	54.0 (9.7)	31.8 (6.6)	43.4 (5.4)	36.4 (8.9)	42.0 (5.1)	34.4 (9.2)	20.7 (3.8)	5.6 (1.2)	12.5 (2.5)		
B ₂ (11)	83.1 (28.2)	5.5 (.8)	63.4 (11.2)	51.3 (11.9)	28.7 (6.6)	45.4 (6.5)	39.3 (3.7)	45.7 (4.3)	36.8 (7.2)	22.8 (1.8)	5.5 (1.6)	13.0 (2.2)		
B ₃ (18)	78.1 (31.3)	5.3 (1.2)	72.6 (11.1)	59.1 (6.7)	31.1 (8.5)	43.8 (6.2)	37.9 (7.3)	45.4 (5.3)	36.0 (6.8)	19.9 (3.5)	6.4 (1.5)	12.4 (2.6)		
A ₁ (8)	73.2 (45.8)	4.9 (.8)	76.5 (13.6)	53.1 (6.3)	38.4 (7.9)	42.8 (9.1)	37.4 (3.7)	44.1 (3.3)	34.5 (6.5)	23.4 (2.5)	6.4 (1.1)	13.9 (2.3)		
A ₂ (1)	100.0 (0)	5.5 (0)	65.0 (0)	65.0 (0)	37.0 (0)	39.0 (0)	40.0 (0)	37.0 (0)	29.0 (0)	18.0 (0)	6.0 (0)	13.0 (0)		
C ₁ (1)	100.0 (0)	7.3 (0)	66.0 (0)	49.0 (0)	34.0 (0)	43.0 (0)	39.0 (0)	44.0 (0)	28.0 (0)	20.0 (0)	7.0 (0)	12.0 (0)		
D (2)	48.8 (15.9)	4.8 (1.7)	83.0 (1.4)	74.5 (6.4)	36.5 (7.7)	49.0 (0)	43.5 (3.5)	47.5 (3.5)	34.0 (1.4)	18.0 (2.8)	10.0 (1.4)	11.5 (3.5)		

* 특성은 각 변인별로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안은 표준편차

※ 각 변인별 점수범위: 어머니의 민감성(A형)-0~100(%)/어머니의 민감성(B)형-1~9/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13~65/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13~65/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수용 대 거부)-10~50/영아의 기질(사회성)-7~28/영아의 기질(정서성)-3~12/영아의 기질(활동성)-4~16

비일관적 애착으로 밝혀진 영아는 각각 1명과 2명으로 통계적 분석에서 제한점을 지니므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표 1〉에서 보면 불안-저항애착아인 C1의 경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불안정하게 애착된 영아의 경우 안정하게 애착된 영아에 비해 애착과 관련된 변인들에서 후자보다 부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불안-저항애착아로 분류된 영아는 안정애착아보다 어머니의 민감성에서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아동영역의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더 낮았다. 이밖에 어머니의 스트레스(부모영역),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영아의 기질에서는 안정애착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에서만 안정애착아들보다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 점수는 불안-회피애착이나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아에 비해서는 낮아,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이 불안-저항애착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처럼 불안-저항애착아는 앞서 살펴본 관련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작용하여 영아가 어머니에게 불안-저항애착하는 형태로 애착을 형성하게 하였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영아는 앞의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인들 외의 어떤 다른 요소가 어머니에게 불안-저항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 영아의 경우 가정환경 배경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은 34세이고 아버지의 연령은 40세로 피험자 중 비교적 높은 연령에 속하였다. 형제 구성에서도 위로 누나가 두명 있었는데, 둘째 누나와의 나이 차이는 7세로 많은 터울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영아의 출생 이후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여 현재 무허가 비닐하우스

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피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 영아의 어머니는 원하던 아들이었으므로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매우 기뻐고, 애정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가 영아에게 애정을 갖고 있고,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련변인들에서도 부정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영아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같은 가족을 둘러싼 어떤 환경적 특성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불안정한 형태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인 D유형은 일부 변인들에서 다른 애착유형들에 비해 부정적인 특성을 훨씬 더 많이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표 1〉을 보면, 어머니의 민감성에서 A형과 B형의 점수 모두가 다른 애착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48.8과 4.84였고,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도 아동영역과 부모영역 모두에서 다른 애착유형들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밖에 영아의 까다로운 정서를 나타내는 기질 변인에서도 안정애착아의 두배에 가까운 10.0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점수도 불안-회피애착인 A₁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나 D유형의 경우도 안정애착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과연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아들의 경우 이들 관련변인들이 작용해서 어머니에게 비조직적/비일관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였는지, 혹은 불안-저항애착아처럼 관련변인들 외에 가정환경적 특성이 작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가정환경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으로 밝혀진 영아는 둘 다 여자아이였고 형제가 없는 외동이었으며 부모와 영아로만 구성된 핵가족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연

령은 만 27세와 만 30세였고, 아버지의 연령은 만 32세와 만 36세로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연령범위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전업주부였고, 어머니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두 영아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고, 소득수준도 각 각 150만원과 220만원이었다.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얻은 정보에서도 두 영아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 영아의 경우, 어머니는 아이를 늦게 낳고 싶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았고, 출산했을 때도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 실망하였고,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아이에게 애정이나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른 영아의 경우도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별다른 애정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면접 당시도 두 어머니 모두 아이가 예뻐 때는 가끔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를 종합해 보면,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아의 경우는 불안-저항애착아의 경우와 달리 보통의 종류계층 가정에 속해 있고, 가정환경배경에서 별다른 특이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영아에게 애정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았고, 아이 키우는 것을 힘들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관련변인에서 나타난대로 영아의 기질이 까다롭고(10.00),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다(아동영역: 74.5, 부모영역: 83.0)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아의 경우는 관련변인에서 다른 애착유형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어머니에게 비조직적/비일관적으로 애착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된다.

2. 영아의 안정애착 및 불안-회피애착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 중 안정애착과 불안-회피애착에 따라 관련변인인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그리고 영아의 기질 등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관련변인들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단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에서만 안정애착아와 불안-회피애착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7.72, p < .01$). 즉, 불안-회피애착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들이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들보다 영아에게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아를 방임하며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등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민감성은 안정애착집단과 불안-회피애착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민감성 평정의 두 방법 모두에서 안정애착아인 B 유형 영아의 어머니들이 불안-회피애착아인 A 유형 영아의 어머니들보다 어머니의 민감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그리고 영아의 기질 등도 영아의 애착유형(안정애착과 불안-회피애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기타 분석

앞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안정 혹은 불안-회피의 유형으로 결정짓는데 유의하게 관련되는 변인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뿐이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고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 외의 다른 변인들도 영아들마다 어머니에 대해서 다른 유형으로 애착을 형성시키는데 분명히 관련

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자는 비록 다른 변인들이 영아의 애착유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다른 변인들과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 간접적으로 영아의 애착유형에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영아의 애착유형 및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은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분명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앞서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나타났으므로 상관관계분

석에서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들도 함께 넣어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 등이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표 3>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민감성(A형)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과 부적의 상관관계($\gamma = -.264, p < .05$)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영아에게 어머니가 민감하지 못할수록 동시에 부당한 양육행동을

<표 2> 영아의 애착유형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관련변인	애착유형	안정애착(B)	불안-회피애착(A)	F
		(n=43)	(n=9)	
		M(SD)	M(SD)	
1. 어머니의 민감성:A형 ^{a)}		80.90(28.58)	76.56(43.52)	.13
2. 어머니의 민감성:B형 ^{b)}		5.34(.93)	4.97(.49)	1.20
3.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		30.70(7.38)	38.22(7.37)	7.72**
4. 어머니의 스트레스:아동영역		55.47(9.63)	54.44(7.10)	.09
5. 어머니의 스트레스:부모영역		68.44(13.11)	75.22(13.26)	1.98
6.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모에대항):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44.07(5.95)	42.33(8.61)	.54
7.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모에대항):수용 대 거부		37.77(7.11)	37.66(3.57)	.00
8.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부에대항):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44.31(5.14)	43.33(3.90)	.29
9.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부에대항):수용 대 거부		35.68(7.63)	33.88(6.33)	.43
10. 영아의 기질:사회성		20.93(3.38)	22.77(2.90)	2.32
11. 영아의 기질:정서성		5.93(1.58)	6.33(1.00)	.60
12. 영아의 기질:활동성		12.60(2.44)	13.78(2.17)	1.78

a) 민감성 A형은 Smith와 Pederson(1988)의 평정방법을 참고로 하여 만든 것으로 총 18개의 장면에서 영아가 어머니의 반응을 요구했을 때 어머니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 장면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b) 민감성 B형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고안한 것으로 총 18개의 장면 각 각에서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은 1~9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가 매겨지며 위에서 제시된 수치는 이들을 다 합쳐 18개의 장면으로 나눈 평균점수이다.

**p<.01

〈표 3〉 영아의 애착유형 및 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영아의 애착유형 ^{a)}	-															
2. 어머니의 민감성: A형	.041	-														
3. 어머니의 민감성: B형	.160	.486***	-													
4.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	-.347**	-.264*	-.082	-												
5. 어머니의 스트레스: 아동영역	.042	-.067	-.060	.204	-											
6. 어머니의 스트레스: 부모영역	-.209	-.048	-.040	.435***	.606***	-										
7.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모에 대한):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043	.087	.080	-.196	-.069	-.049	-									
8.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모에 대한): 수용 대 거부	-.036	.099	-.090	-.281*	.149	.221	.324**	-								
9.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부에 대한):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071	.093	.361***	-.173	-.095	.138	.420**	.385*	-							
10.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부에 대한): 수용 대 거부	.097	-.105	.141	-.125	-.049	.194	-.036	.501***	.519***	-						
11. 영아의 기질: 사회성	-.149	.030	-.013	.076	-.511***	-.283*	-.026	-.296*	.052	.052	-					
12. 영아의 기질: 정서성	-.137	-.264*	-.189	.267*	.638***	.468***	.171	.112	-.005	-.005	-.304*	-				
13. 영아의 기질: 활동성	-.178	.086	.011	.185	-.019	.065	.092	-.159	.078	.078	.612***	-.158	-			
14. 어머니의 교육수준	.370**	-.505	-.138	-.424***	-.114	-.066	.155	.359**	.151	.354**	-.062	-.028	-.217	-		
15. 아버지의 교육수준	.371**	-.127	-.077	-.414***	-.056	-.014	.110	.368**	.195	.361**	-.182	-.017	-.289*	.901***	-	
16. 소득수준	.075	-.173	-.234*	-.335**	-.116	-.113	.085	-.074	-.144	-.135	.110	-.119	.009	.320**	.223	-

* P<.05 **P<.01 ***P<.001

^{a)} 영아의 애착유형은 명목변수이므로 안정예측은 1로 불안-회피 예측은 0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민감성(A형) 외에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변인들로는 어머니가 부모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gamma = .435, p < .00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중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수용 대 거부 영역($\gamma = -.281, P < .05$), 영아의 기질 중 정서성 영역($\gamma = .267, p < .05$), 어머니의 교육수준($r = -.424, p < .001$), 아버지의 교육수준($r = -.414, p < .001$) 그리고 소득수준($r = -.335, p < .01$) 등이다. 이상과 같은 상관관계분석을 토대로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과 관계되는 5개의 변인들(부모영역에서의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용 대 거부 측면에서의 어머니의 자신의 모에 대한 아동기경험, 영아의 정서성, 어머니

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소득수준)이 과연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얼마나 예측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4>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해 주는 변인들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스트레스(부모영역), 자신의 모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수용 대 거부)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세 변인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약 40% 정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변인들, 영아의 기질(정서성)과 소득수준 등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의의있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R	R ²	R ² 변화량	B	β	F값
1. 어머니의 교육수준	.444	.197	.197	-1.545	-.316	12.992***
2. 어머니의 스트레스: 부모영역	.485	.342	.145	.261	.442	13.513***
3.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모에 대한) : 수용대 거부 상 수	.630	.397	.055	-.307	-.259	11.175*
				37.209		

*** $p < .001$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와 어머니의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되는 여러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아들이 어머니에게 나타내는 애착의 형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저항애착아의 질적분석에서 이들은 어머니의 민감성이 오히려 안정애착아보다 더 높고 어머니의 스트레스 점수와 영아의 기질점수도

안정애착아와 거의 비슷하였다. 단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이 안정애착아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회피애착아나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아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런 결과는 안정애착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특성과 관련이 더 많고 불안정애착은 어머니의 부정적 특성과 더 많이 관계 있다는 애착이론의 일반적 설명과는 약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의 가정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이 영아가 어머니에게 불안-저항하는 형태로 애착을 형성하는데는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같은 가정환경의 변

화로 인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영아가 12개월과 18개월일 때 애착을 측정하여 애착의 안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안정애착에서 불안애착으로 변한 영아의 어머니들 경우 유의하게 더 높은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밝힌 Vaughn과 그의 동료들(1979)의 연구에서 이와같은 논의에 대한 뒷받침을 얻을 수 있다.

둘째로,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아의 경우도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민감성(A, B형)이 다른 세 유형들보다 낮게 나타났고, 어머니가 아동영역과 부모영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른 세 유형들보다 훨씬 높았고, 그리고 영아의 기질(정서성)도 다른 세 유형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경우, 불안-회피애착아에 비해서는 정서적 무관심, 방임, 신체적 체벌 등의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이 적게 나타났지만 안정애착아나 불안-저항애착아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영아의 가정환경 배경에 대해 살펴본 결과, 특이할 만한 점이 없는 보통의 중류가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불안-저항애착아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영아가 어머니에게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을 형성하는데는 앞서 제시된 어머니의 민감성,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스트레스 등의 관련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조직적/비일관적애착아는 영아의 기질(정서성)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다른 세 애착유형들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어머니에게 비조직적/비일관적으로 애착하는 것에 이 두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이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애착유형 중 가장 특이한 형태인 일관되지 못하고 뚜렷한 목표없이

행동하는 등의 모순적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유형을 낳았다고 본다.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영아의 기질(정서성)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이밖에 영아의 기질(정서성)은 어머니의 민감성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영아가 까다로운 정서를 지닐수록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Crockenberg(1981)와 Pederson과 그의 동료들(1990)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영아의 기질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아의 애착유형을 결정짓는다고보다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서 이것이 영아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으로 나타난 영아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단지 추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민감성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과정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아를 대상으로한 심층적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세째, 영아의 안정애착과 불안-회피애착에 따라 관련변인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에서는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애착과 민감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애착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 실험실 상황이라는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과의 관계를 밝힌 England, 및

Farber(1984), 그리고 Isabella와 Belsky (199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을 일회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여러번의 가정관찰을 통해 밀도있게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찰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단 한번에 걸쳐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였으므로 과연 어머니들이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일반화시키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고, 방임하며,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등의 부당한 양육행동은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불안-회피애착아의 어머니가 안정애착아의 어머니보다 부당한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이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Crittenden, 1985; Calson et. al., 198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체벌을 많이 행사하고 방임하는 경향이 높고, 정서적으로도 무관심한 경우, 불안정한 애착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의 기질은 안정애착과 불안-회피애착의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점은 비록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의 기질이 영아의 애착유형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과 같은 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안정애착과 불안-회피애착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피험자의 수가 적고 아동기 경험을 피상적인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으므로 심층적 과정을 알아내는데 있어 제한적이었을거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어렸을 때의 경험이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들을 용서한 경우 자녀와의 애착유형이 안정적인 것으로

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Ricks, 1985), 이러한 과정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면접 등 심층적 접근을 통해 밝혀 낼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결국, 본 연구에서 선정한 영아의 애착과 관련된 변인들 중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만 영아의 애착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과 기타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과 관계있는 변인들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부모영역), 어머니의 자신의 모에 대한 아동기 경험(수용 대 거부), 영아의 기질(정서성) 등이었고 이밖에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들도 유의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인들 중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부모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당한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할 때도 더 이상 부모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이원적 관계에서 벗어나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 연구되어야 함을 함축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머니가 영아에게 부당한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즉, 신체적 체벌을 많이 하고 방임하며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경우 영아는 어머니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적고, 부모노릇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친구관계와 같은 다른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많이 수용받지 못하고 거부되었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남편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영아기를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영아의 애착을 직접 실험실에서 측정하여 영아의 애착유형을 알아보고, 그리고 영아의 애착과 어머니의 특성들과 영아의 특성간의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어머니와 영아기 자녀사이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성질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추후 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너무 적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영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화되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영아를 대상으로 반복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이 애착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민감성 측정방법의 문제점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민감성은 실험실내에서만 시간에 측정하는 것보다 가정과 같이 자연스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몇 회에 걸친 가정관찰을 통해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해 본다.

셋째, 어머니의 민감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도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아동기경험도 단순히 질문지를 통해서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어머니와의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더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을 애착과 같은 시점에서 측정하였는데, 사실상 이러한 기질의 측정은 영아의 기질적 특성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영아가 본래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기질적 특성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아가 태어난 직후 신생아 때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순(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임·박성연(1994). 낯선상황의 애착유형분류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59-170.
- 유은희(1991). 성인자녀-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생활변화의 적응-전생애적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여성개발원), 111-143.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insworth, M. D. S. (1982).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J. Belsky(Ed.), *In the beginning-*

- Readings on infancy*(pp. 135-143). NY:Columbia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NJ:LEA.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retherton, I. (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s: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pp. 1061-1100). New York:John Wiley.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273-308).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NJ:LEA.
- Carlson, V., Cicchetti, D., Barnett, D., & Braunwald, K. (1989). 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relationships in maltreate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25-531.
- Cox, M. J., Owen, M. T., Henderson, V. K., & Margand, N. A. (1992). Prediction of infan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74-483.
- Crittenden, P. M. (1985). Maltreated Infants:Vulnerability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26*(1), 85-96.
- Crockenberg, S. B. (1981). Infant initi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Egeland, B., & Far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Hart, N. J. (1985). *Family system influences on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 Hazen, N. L., & Durrett, M. E. (1982). Relationship of security of attachment to exploration and cognitive mapping abilities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51-759.
-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

- 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Main, M., Kaplan, N., & Cassidy, J. C.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pp. 60-104).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 / 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121-160).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Ricks, M. H. (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pp. 211-227).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cks, M. H., & Noyes, D. (1984). *Secure babies have secure moth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es, Amherst.
- Schneider-Rosen, K., & Cicchetti, D.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and cognition in maltreated infants: Quality of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visual self-recognition. *Child Development*, 55, 648-658.
- Smith, P. B., & Pe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Thompson, R. A., Connell, J. P., & Bridges, L. J. (1988). Temperament, emotion, and social interactive behavior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of attachment system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1102-1110.

Vaughn, B. E., Egeland, B., Sroufe, L. A., & Waters, E.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12 and 18 months: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Vaughn, B. E., Stevenson-Hinde, J.,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63-473.